5세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한글 떼기'와 '문제 풀기'보다 먼저 자라야할 힘,

문해력 기르기

일상적 대화에서 시작하기

말과 생각이 연결될 때,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자라납니다.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웹툰으로 보는

문해력 기르기

작화: 전민정

요즘 아이들,
글을 읽고도 이해 못해요!

"문해력은 훈련입니다!"

유아~초등
문해력 전문
OO 논술센터

우리 애도 책 읽고 나서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
문제라도 풀려야 하나…….

곰이 혼자
남았네….
외롭겠다.

곰은 친구들이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알아차리는 거야.

엄마, '이해한다'는 게 뭐야?

아~ 그래서 내가 곰이 외롭다고 느꼈구나!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아이가 들어오려고 했다.





너가 지금 화난 거… 나도 이해해! 네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내가 가져갔지….

응…. 괜찮아. 그럼 같이 하자!

이건 내가 양보할게!

고마워.

엄마, 거북이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 거북이가 무서워도 계속 해보려고 한 것, 그게 진짜 용기지?

그래, 지훈아. 마음을 굳게 먹고 해보려는 게 용기란다.



장을 보며, 친구와 놀며, 책을 보며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문해력은 자라고 있었다.


엄마,
그럼 '용기' 내어
한마디 할게.
나, 아이스크림
한개 더 가능?
어, 갑자기
문해력으로
협상을 ….
어라,
설득 당한것
같은데!?

“

문해력,

문제를 많이 푼다고 생길까요?

학습을 통해 길러질까요?

”

단순히 글자만 읽는 아이와
글을 읽고 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아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알림장, 안내문,
유치원 공지...

한글은 읽히는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를 때...
성인도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나요?



글자를 **읽는** 것과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다른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문해력**은 무엇인가요?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넘어,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석된 정보를

자신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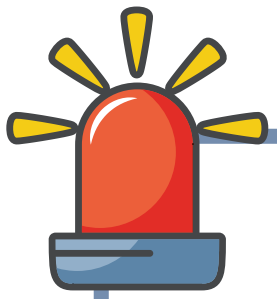
“

글을 매개로 **판단**하고,
의사소통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꼭 필요한 힘입니다.

”

혹시 아이의 이런 모습, 익숙하신가요?

- ☐ 글자는 읽는데, 내용을 질문하면 “몰라”라고 해요.
- ☐ 말은 잘하는데, 책의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 ☐ 긴 설명을 들으면 놓치는게 많아요.



자녀가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

문해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해력은 한글을 다 떼고
생기기 시작할까요?

혼자 책을 읽는다고
문해력이 시작될까요?



다음의 두 경우 중,
어떤 아이의 문해력이 더 발달할까요?



아이가 혼자서라도
책을 더듬더듬 읽을 때

VS



성인이 아이의 표정을 보며
책을 읽어줄 때

어떤 아이가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셨나요?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지만,



성인이 아이의 표정을 보고
얼마나 이해하는지 살피면서 책을 읽어줄 때,
아이는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해력은
한글을 다 떼었다고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을 **듣고**,
스스로 **말해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천천히** 자라납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생각과 말이 연결되어
문해력이 자라는 중이에요.

말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경험은 **글을 이해하는 힘**으로 이어져요.



문해력이 발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황

그림책 등장인물의 감정을 파악할 때



책을 읽고, **느낌**을 말하는 것.
바로 **문해력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상황

책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책에 나온 **단어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대화**로 알아가는 과정.

바로 **말과 뜻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세 번째 상황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말을
생활 속에서 꺼낼 때

너가 화난 것 이해해.
미안해.





오늘부터 열심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어.

보고 들은 말이

생활 속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문해력은 커집니다.

네 번째 상황

다양한 말과 글을 일상 속에서 만날 때

아침밥 먹자! 

대신,

이제 식사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도 아이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언어의 뜻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문해력이 자라납니다.

다섯 번째 상황

같은 말을 다양한 상황에서 만날 때

"괜찮아" 이 한마디는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느낌이 달라져요.

- 누군가 상황을 물을 때
- 엄마가 다정하게 말할 때
- 친구가 무심하게 말할 때



만 5세 유아라면 **문맥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말이 가진 느낌의 차이를 아는 것도

문해력의 한 부분입니다.

문해력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자라지 않아요.

말하고, 듣고, 함께 읽으며 자랍니다.





한글을 읽고 쓰게 가르치는 대신,

학습지나 문해력을 위한 학원을 고민하는 대신,

아이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실천 1. 함께 책을 읽어요.

이야기 책을 혼자 읽도록 두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 장면에서 기분이 어땠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하고 말해보는 순간들이 아이의 문해력을 자라게 해요.

✦ 실천 2. 의미 있는 질문을 해요. ✦



같이 만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전시 관람 후에는
내용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넌 토끼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해요.

실천 3. 아이의 말을 경청해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 다음 말로의 연결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 반복되거나 엉뚱한 말도 괜찮아요.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들이
아이의 **생각과 표현 능력**을
함께 자라게 해요.

실천 4. 다양한 어휘를 써 보세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보세요.

"아빠(엄마)도 너무 **설렌다**."



"구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아주 멋진 걸."



"친구를 기다려주는 모습이 아주 **의젓한 걸**."



조금 어려운 단어라도
맥락 속에서 함께 이해해 보는 경험은
아이의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워줘요.

실천 5. 다양한 글을 함께 읽어요.

실생활 속 다양한 글들을
함께 읽어보세요.

TIP!

실생활 속 여러 글을 보고
“이건 누가 쓴 글일까?”
“왜 이 글을 썼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엘리베이터의 안내문,
장난감 조립 설명서,
청첩장 등...

아이와 여러 글을 읽고 대화하면,
일상 속 글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쓰이는지’와 연결됩니다.

실천 6. 낱말을 같이 찾아보아요.

아이가 말의 뜻을 물어볼 때,
함께 찾아보세요.

"조부모가 무슨 말이야?"

"경험은 무슨 뜻이야?"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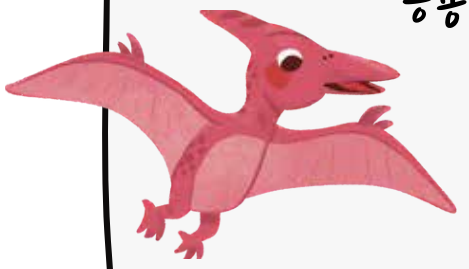
읽었던 책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아용 사전도 활용하면 좋아요.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해 보는 경험은
어휘를 확장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 실천 7. 다양한 읽을 거리를 주세요. ✦

아이의 관심을 따라
다양한 책을 **함께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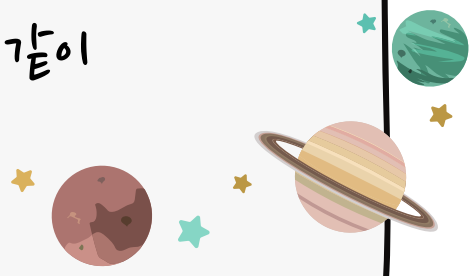


아이가 관심을 보인다면,

공룡, 우주, 우리 몸에 관한 책과 같이

정보가 담긴 책을

함께 읽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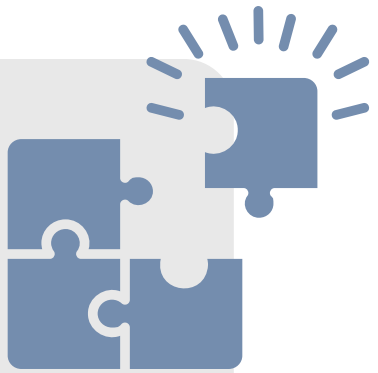


아이의 흥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와 **어려운 개념**도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가 돼요.

지금도...
우리 아이의 문해력은 자라고 있어요.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보다,
더 많은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와 나눈
이야기 한 조각,
그것이 **내일의 문해력**이 됩니다.



오늘도

“

책 한 권,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

그것이면

문해력을 키우는 하루로 충분합니다.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